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序詩

1941.11.20

死ぬ日まで天を仰ぎ
一点の恥なきことを、
木の葉に起こる風にも
わたしは苦しんだ。
星をうたう心で
すべての死んでゆくものを愛さなければ
そしてわたしに与えられた道を
歩みゆかねば。

今夜も 星が 風にさらされる。

자화상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自画像

1939.9

山の麓をめぐって 田んぼのそば ぼつんとある井戸を ひとり尋ねて行って
は、そっとのぞいて見ます。

井戸の中には、月が明るく、雲が流れ、空（天）が広がり、真っ青な風が
吹き、秋があります。

そして ひとりの男がいます。

なぜかその男が憎らしくなって、帰って行きます。

帰ってから考えると、その男がかawaiiそうになります。
もう一度行ってのぞいてみると、男はそのままいます。

またその男が憎らしくなって、帰って行きます。

帰ってから考えると、その男がいとおしくなります。

井戸の中には、月が明るく、雲が流れ、空（天）が広がり、真っ青な風が
吹き、秋があり、追憶のように 男がいます。

아우의 인상화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발걸음을 멈추어
살그머니 애딘 손을 잡으며
“너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설운 진정코 설운 대답이다.

슬며 — 시 잡았던 손을 놓고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弟の印象画

1938.9.15

赤い額に 冷たい月が差し
弟の顔は 悲しい絵だ。

歩みを止め
そっと幼い手を握って
「お前は大きくなったら何になる」

「人になる」
弟の悲しい ほんとうに悲しい答だ。

そおっと 握っていた手を放し
弟の顔を もう一度見つめる。

冷たい月が 赤い額に濡れ、
弟の顔は 悲しい絵だ。

코스모스

청초한 코스모스는
오직 하나인 나의 아가씨,

달빛이 싸늘히 추운 밤이면
옛 소녀가 못 견디게 그리워
코스모스 핀 정원으로 찾아간다.

코스모스는
귀뚜리 울음에도 수줍어지고,

코스모스 앞에선 나는
어렸을 적처럼 부끄러워지나니,

내 마음은 코스모스의 마음이요
코스모스의 마음은 내 마음이다.

코스모스

1938.9.20

清楚なコスモスは
ただひとりのわたしの少女、

月の光が冷たく寒い夜になれば
昔の少女がたまらなく恋しく
コスモスの咲いた庭へ たずねてゆく。

コスモスは
こおろぎの鳴く声にもはじらい、

コスモスの前に立ったわたしは
幼いころのようにはずかしくなって、

わたしの心は コスモスのところ
コスモスの心は わたしのところだ。

슬픈 족속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悲しい同族

1938.9

白い手ぬぐいが黒い頭を包み

白いコムシン*が荒れた足にかかる。

白いチョゴリとチマが悲しいからだを覆い

白い帯紐が細い腰をきゅっと締める。

*伝統的なゴムの靴

귀뚜라미와 나와

귀뚜라미와 나와
잔디밭에서 이야기했다.

귀뚜라미
귀뚜라미

아무에게도 알으켜 주지 말고
우리 둘만 알자고 약속했다.

귀뚜라미
귀뚜라미

귀뚜라미와 나와
달 밝은 밤에 이야기했다.

こおろぎとわたしと

1938 頃

こおろぎとわたしと
芝生で話をした。

クイトウルクイトウル
クイトウルクイトウル

だれにも教えないで
わたしたち二人だけ知っていようと約束した。

クイトウルクイトウル
クイトウルクイトウル

こおろぎとわたしと
月の明るい晩に話をした。

八福 마태복음 5장 3-12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

八福——マタイ福音書 5章 3~12

1940.12

悲しむ者は、幸いである
悲しむ者は、幸いである
悲しむ者は、幸いである
悲しむ者は、幸いである
悲しむ者は、幸いである
悲しむ者は、幸いである
悲しむ者は、幸いである
悲しむ者は、幸いである

私たちは（あるいは、彼らは）永遠に悲しむであろう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 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피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十字架

1941.5.31

追いかけてきた日の光が
いま 教会堂の尖端
十字架にかかりました。

尖塔があればほど高いのに
どうして登ってゆけるでしょうか。

鐘の音も聞こえてこず
口笛でも吹きつつ さまよい歩いて、

苦しんだ男、
幸福なイエス・キリストにとって
そうだったように
十字架が許されるのなら

首を垂れ
花のように咲きだす血を
暗くなってゆく天の下に
静かに流しましょう。

바람이 불어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 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꼬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꼬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風が吹いて

1941.6.2

風がどこから吹いてきて
どこへ吹かれていくのか。

風が吹いているが
わたしの苦しみには理由がない。

わたしの苦しみには理由がないのか。

ただひとりの女を愛したこともない。
時代を悲しんだこともない。

風がしきりに吹いているが
わたしの足は岩の上に立っている。

川の水が絶え間なく流れているが
わたしの足は丘の上に立っている。

또 다른 고향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 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もうひとつの故郷

1941.9

ふるさとへ帰ってきた日の夜に
わたしの白骨がついて来て ひとつの部屋に横たわった。

暗い部屋は 宇宙へ通じ
天からか 音のように 風が吹いてくる。

闇の中で きれいに風化作用する
白骨をのぞきこみながら
涙ぐむのは わたしが泣くのか
白骨が泣くのか
美しい魂が泣くのか

志操の高い犬は
夜を明かして 闇に向かって吠える。

闇に向かって吠える犬は
わたしを追い立てるのだろう。

ゆこう ゆこう
追い立てられる人のように ゆこう
白骨の知らぬまに
美しいもうひとつの故郷に ゆこう。

별헤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헤는 것은
취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오,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오,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이름과,

星を数える夜

1941.11.5

季節が移りゆく天には
秋でいっぱい 満ちています。

わたしはなんの心配もなく
秋の中の星々をみな数えられそうです。

胸の中の ひとつ ふたつと 刻まれる星を
今すべて数えきれないのは
すぐに朝が来るからで、
明日の夜が残っているからで、
まだわたしの青春が尽きていないからです。

星ひとつに 追憶と
星ひとつに 愛と
星ひとつに 寂しさと
星ひとつに 憧れと
星ひとつに 詩と
星ひとつに お母さん、お母さん、

お母さん、わたしは星ひとつに美しい言葉をひとことずつ呼んでみます。
小学校のとき机を並べた子らの名まえと、佩、鏡、玉、このような異国
の少女たちの名まえと、すでに赤ちゃんのお母さんとなった娘たちの名ま
えと、貧しい隣人たちの名まえと、鳩、小犬、兎、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푸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게외다.

らば、鹿、フランシス・ジャム、ライナー・マリア・リルケ、このような
詩人の名まえを呼んでみます。

これらの人たちはあまりにも遠くにいます。
星がはるかに遠いように、

お母さん、
そしてあなたは遠く ^{ブッカンド}北間島におられます。

わたしは何か恋しくて
このたくさんの星の光が降った丘の上に
わたしの名まえの字を書いてみて、
土でおおってしまいました。

たしかに 夜を明かして鳴く虫は
恥ずかしい名を悲しんでいるからです。

けれども冬が過ぎて わたしの星にも春が来れば
墓の上に青い芝草が萌え出るように
わたしの名まえの字がうずめられた丘の上にも
誇らしく草が生い繁るでしょう。

懺悔錄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속에
내얼굴이 남아있는것은
어느王朝의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가

나는 나의懺悔의글을 한줄에 주리자,
—— 滿二十四年一ヶ月을
무슨 김플을 바라 살아왔든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줄의 懺悔錄을 써야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웨그런 부끄런 告白을 했든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隕石 밑으로 홀로 거러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속에 나타나온다.

懺悔錄

1942.1.24

靑い綠靑のついた銅の鏡のなかに
わたしの顔が残っているのは
ある王朝の遺物だから
こんなにも恥ずかしいのか

わたしはわたしの懺悔の文を1行に縮めよう
—— 滿二四年一ヵ月を
何の喜びを願って生きてきたのか

明日か明後日か そのある楽しい日に
わたしはまた 1行の懺悔錄を書かねばならない。
—— そのとき その若い年に
なぜそのような恥ずかしい告白をしたのか。

夜になれば夜ごとに わたしの鏡を
手のひら 足のうらでみがいてみよう

するとある隕石の下へひとり歩み行く
悲しい人の後ろ姿が
鏡の中に現れてくる。

흰 그림자

황혼이 짙어지는 길모퉁에서
하로종일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검의 옮겨지는 발자취소리,

발자취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든가요.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오래 마음 깊은 속에
피로워하든 수많은 나를
하나, 둘 제 고향으로 돌려 보내면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흰 그림자들
연연히 사랑하든 흰 그림자들,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신념이 깊은 으젓한 양처럼
하로종일 시름없이 풀포기나 뜯자.

白い影

1942.4.14

黄昏が濃くなってゆく街角で
一日中、疲れた耳を静かに傾ければ
夕闇の、移される足跡の音

足跡の音を聴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
私は聡明だったのでしょうか。

いま愚かにもすべてのことを悟った次に
長く心の奥深くに
苦しんでいた多くの私を
ひとつ、ふたつ、私のふるさとへ送り返せば
街角の闇の中へ
音もなく消えゆく白い影、

白い影たち
ずっと愛していた白い影たち、

私のすべてのものを送り返した後
うつろに裏通りをめぐり
黄昏のように色づく私の部屋へ帰ってくれば

信念の深い堂々たる羊のように
一日中憂いなく草でもはもう。

흐르는 거리

으스럼히 안개가 흐른다. 거리가 흘러간다.

저 전차, 자동차, 모든 바퀴가 어디로 흘러워가는 것일까?
정박할 아무 항구도 없이, 가련한 많은 사람들을 싣고서,
안개 속에 잠긴 거리는,

거리모퉁이 붉은 포스트상자를 붙잡고, 섰을라면 모든
것이 흐르는 속에 어렴풋이 빛나는 가로등, 꺼지지 않는
것은 무슨 상징일까? 사랑하는 동무 박이여! 그리고
김이여! 자네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끝없이 안개가
흐르는데,

「새로운 날 아침 우리 다시 정답게 손목을 잡아 보세」 몇
자 적어 포스트 속에 떨어뜨리고, 밤을 새워 기다리면
금휘장에 금단추를 빼었고 거인처럼 찬란히 나타나는
배달부, 아침과 함께 즐거운 내림

이 밤을 하염없이 안개가 흐른다.

流れる街

1942.5.12

おぼろに霧が流れる。街が流れてゆく。

あの電車、自動車、すべての車輪はどこへ流されてゆくのだろうか。停泊
する何の港もなく、憐れな多くの人々を載せて、霧の中に閉ざされた街
は、

街角の赤いポストをつかんで立っていると、すべてのものが流れるなかに
ぼうっと光る街灯、消えないのは何の象徴か? 愛する友 朴よ! そし
て金よ! 君たちは今どこにいるのか? 果てしなく霧が流れているが、

「新しい日の朝、ぼくたちは仲良く手首を取り合おう」何字か書いてポス
トの中に落とし、夜を明かして待てば、金の徽章に金ボタンを光らせて巨
人のように燦然と現れる配達夫、朝とともにうれしい来臨、

この夜をとめどなく霧が流れる。

사랑스런追憶

봄이오든 아침, 서울 어느쪼그만 停車場에서
希望과 사랑처럼 汽車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히 그림자를 터트리고,
담배를 피웠다.

내 그림자는 담배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떼가 부끄러울것도 없이
나래속을 속, 속, 햇빛에빛워, 날었다.

汽車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 다 주어,

봄은 다가고—— 東京郊外 어느 조용한 下宿房에서,
옛거리에 남은 나를 希望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汽車는 몇번이나 無意味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停車場가차운
언덕에서 서성거릴게다.

——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있거라.

いとしい追憶

1942.5.13

春が来ていた朝、ソウルのある小さな停車場で
希望と愛のように汽車を待ち、

わたしはプラットフォームにつらい影を落として
たばこをふかした。

わたしの影はたばこの煙の影を飛ばし、
鳩の一群が恥じることもなく
翼の中をつぎつぎに日の光にさらして飛んだ。

汽車はなんの新しい消息もなく
わたしを遠く乗せていってくれて、

春はみな行き——東京郊外のある静かな下宿部屋で、
昔の街に残ったわたしを希望と愛のようになつかしむ。

今日も汽車は何度も無意味に通り返ぎ、
今日もわたしはだれかを待って停車場近くの
坂を行ったり来たりするだろう。

——ああ 若さは長くそこに残っていてくれ。

쉽게 씌어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 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たやすく書かれた詩

1942.6.3

窓の外には 夜の雨がささやいて
六畳の部屋は ひとの国

詩人というのは悲しい天命であると知りつつも
1行の詩を書いてみるか

汗のにおいと愛のにおいの ふくよかに漂う
送ってくださった学費封筒を受け取って

大学ノートを脇に抱えて
老いた教授の講義を聞きに行く

考えてみれば 幼いときの友を
ひとり、ふたり、みな 失ってしまい

わたしは何を願って
わたしはただ、ひとり沈むのか

人生は生きがたいというのに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詩がこのようにたやすく書かれるのは
恥ずかしいことだ

六畳の部屋は ひとの国
窓の外に夜の雨がささやいているが

灯火をともして 闇を少し追いやり
時代のように来る朝を待つ 最後のわたし

わたしは わたしに 小さな手を差し出して
涙と慰めで握る最初の握手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新しい道

1938.5.10

川をわたって森へ
峠を越えて村へ

昨日も行き、今日も行く
わたしの道、新しい道

タンポポが咲き、かささぎが飛び
娘が通り、風が起こり

わたしの道はいつも新しい道
今日も……明日も……

川をわたって森へ
峠を越えて村へ

꿈은 깨어지고

꿈*은눈을 떴다,
그윽한 幽霧에서。

노래하던 종달이,
도망쳐 나타나고。

지난날 봄타령하던
금잔디 밭은아니다。

탑은 문허졌다,
붉은 마음의탑이——

손톱으로색인 大理石塔이——
하로저녁 暴風에 餘地없이도、

오—荒廢의 썩밭.
눈물과 목메임이여!

꿈은 깨어졌다,
탑은 문허졌다。

*1955年版では 잠(眠り)となっている。

夢は破れて

1936.7.27

夢は目を開けた、
深く静かな霧の中で。

歌をうたっていたひばり、
逃げて飛んで行く。

去る日 春の歌をうたっていた
きれいな芝生ではない。

塔は崩れた、
赤い心の塔が——

爪で刻んだ大理石の塔が——
一日の夕べの暴風に 余地なくも

ああ—荒廢のよもぎ畑、
涙と悲嘆よ！

夢は破れた、
塔は崩れた。

무서운 시간

저 나를 부르는것이 누구요,

가랑뿔 입파리 푸르러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呼吸이 남아 있소.

한번도 손들어 보지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몸들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오.

일이 마치고 내 죽는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뿔이 떠러질텐데.....

나를 부르지마오.

恐ろしい時間

1941.2.7

そのわたしを呼ぶのは だれですか、

枯れ葉だった木の葉が出てくる陰なのに、
わたしはまだここに息が残っている。

一度も手を上げてみたことないわたしを
手を上げて示す天もない私を

どこにわたしの身を置く天があつて
わたしを呼ぶのですか。

事が終わってわたしが死ぬ日の朝には
悲しくもない枯れ葉が散るでしょうが……

わたしを呼ばないでください。